할인경쟁 '박車' … 새차 타고 고향길 달려볼까

메르세데스-벤츠 c220d 블루텍 아방가르드

현대차 쏘나타 2.0 터보 익스클루시브

기아차 준중형 세단 K3

9월 개별소비세 인하로 최대 360만원까지 할인판매

수입차들도 추석 귀성여비 지원 발빠른 대처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등 호재에 발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업체별로 개소세 인하분에 9월 한달간 특별 할인을 적용해 많게는 36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9월 한 달간 준중형 세단 K3를 개소세 인하분(26만~40만원)에 130만원의 할인을 더해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기아차의 SUV 스포티지 구형도 188만~205만원이 인하된다.

기아자동차 경차 모닝은 최종 인하폭이 86만원에 달한다. 경차 가격이 최대 1000만원 중반대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할인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 쏘나타에 최대 70만원 할인을 적용한다. 개소세 인하로 41만~58만원 저렴해졌고, 추가 할인이 반영되면 모델별로 111만~128만원 저렴해진다. '쏘나타 2.0 터보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두 혜택을 더하면 기존 대비 128만원 싸게 살 수 있다.

현대차의 준대형 세단 아슬란의 경우도 모델에 따라 201만~214만원 저렴해진다. 개소세 인하로 최대 40만원 저렴해진 아반떼는 특별 할인까지 더해 가격이 최대 166만원 내려갔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맥스크루즈의 최상위 모델인 '2.2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은 249만원 인하됐다.

르노삼성은 SM5 D 구매 고객에 한해 개소세 인하로 최저 47만원이 낮아진 가격에서 추가로 50만원 할인을 적용, 총 97만원 할인가로 판매한다. SM5 D 프리미엄의 경우 총 101만원이 할인된다.

여기에 현금 구매시 150만대 판매기념 150일치 유류비 70만원 지원, 7월 생산분 100만원 할인, 재구매 고객 20만원 할인 등 9월 판매조건 혜택까지 받으면 최대 291만원까지 할인폭이 커진다.

QM5 디젤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른 60만원(4WD RE)과 이번에 더블 할인 50만원, 현금 구매시 150일간 유류비 80만원 지원, 6월 생산분 120만원 할인, 재구매 고객 20만원 할인 등 최대 330만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 개별소비세 인하 + 9월 프로모션 차값 인하폭 (단위:만원)

브랜드	모델	최대 인하폭
현대차	쏘나타 2.0 터보 익스클루시브	128
	아슬란 3.3 익스클루시브	214
	아반떼 MD	166
	맥스크루즈 2.2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249
기아차	모닝(모든 모델)	86
	K3 1.6디젤 노블레스	200
	스포티지(구형)	205
르노삼성	SM5 D 프리미엄	291
	QM5 디젤	330
닛산	패스파인더	230
혼다	어코드 3.5	360
	CR-V 투어링	160
볼보	S80 D4 모멘텀	364
	V40 D3 키네틱	144
BMW	520d	60
메르세데스 벤츠	E220블루텍 아방가르드	80
아우디	A6 35 TDI 컴포트	77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BMT	50

〈자료:각 사 취합〉

한국지엠은 추석 귀성여비 지원 명목으로 캡티바 280만원, 말리부 디젤 250만원, 알페온 250만원, 크루즈 디젤 220만원 등 모델별로 20만~280만원까지 이달 한달 동안 현금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개소세 인하분까지 더해지면 캡티바 344만원, 말리부 디젤 304만원, 크루즈 디젤 261만원, 2015년형 올란도 디젤 231만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또 알페온 최대 322만원, 2015년형 크루즈 가솔린 최대 218만원, 말리부 가솔린 최대 216만원, 아베오 최대 156만원, 2015년형 트랙스 가솔린 최대 142만원씩 추가로 인하된다.

수입차들도 발빠르게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닛산의 패밀리 SUV 패스파인더의 가격은 최대 230만원까지 낮아졌다. 개소세 인하분 60만원에 업체의 특별 할인액 170만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닛산의 디젤 SUV 캐시카이도 개소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캐시카이 S그레이드' 모델은 기존 3050만원에서 2990만원으로 가격 인하됐다.

혼다는 일부 차종에 파격적으로 3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적용한다. 대표 중형 세단 '어코드3.5' 모델의 경우 300만원 현금 할인에, 개소세 인하분(60만원)을 더해 360만원 저렴해졌다. SUV인 CR-V의 경우도 투어링 모델은에 한해 최대 160만원 낮아졌다.

가장 적극적인 할인혜택을 내건 볼보는 대형세단인 S80의 'D4 모멘텀' 모델에 한해 최대 364만원까지 낮췄다.

국내 수입차 시장의 강자인 독일 브랜드들은 자체 프로모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소세 인하로 차값이 소폭 떨어졌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E220 블루텍 아방가르드'와 'C220d 아방가르드'는 각각 80만원씩 차값이 내려갔다. BMW의 대표 모델인 '520d'는 60만원, 아우디 'A6 35 TDI 컴포트' 모델은 기존 차값 대비 77만원이 저렴해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차 효과 … 내수시장 쾌속 질주

8월 13만9327대 판매

지난해보다 13.2% 늘어

스파크, K5 등 신차가 차례로 출시된데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자동차업계의 8월 내수 판매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8월 자동차 국내판매 물량은 13만9천327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2% 늘었다.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4.6%, 7월 7.3%에 이어 증가세가 계속됐다.

기아차는 신차인 K5를 출시한 효과와 함께 쏘렌토 등 SUV의 판매 호조가 겹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9%나 증가했다. 판매량은 4만1740대다.

한국GM도 스파크와 임팔라 등 신차 출시 효과와 트랙스 등 다목적차량의 판매가 늘면서 올해 최대 판매량인 1만3천844대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16.0%가 증가했다.

현대차는 월 내수판매 1, 2위를 달성한 아반떼(8806대)와 싼타페(7957대)가 판매를 이끌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6.1% 늘었다.

티볼리 디젤모델의 판매가 늘어난 쌍용이 45.7% 늘었고 르노삼성도 QM3, SM7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30.8% 증가했다.

외제차는 이 기간 국내에서 2만564대가 팔려 24.7% 증가했다. 점유율은 14.8%.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수로는 0.7% 감소한 18만1915대를 기록했고 금액은 9.1% 줄어든 27억달러를 기록했다.

북미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였지만 중국·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기 침체가 계속됐고 환율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K5 고객 시승 이벤트'

참가자에 영화예매권·주유상품권 증정

기아자동차는 오는 30일까지 기아차 신형 K5를 시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K5 고객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지점이나 시승센터를 방문해 K5를 시승한 후 본인과 시승한 차량의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인증사진, 이벤트 응모 신청내역이 담긴 응모 인증사진, 시승한 지점 또는 시승센터의 이름, 간단한 시승소감 등을 담아 '지정된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된다.

기아차는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영화예매권 2매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아차 홈페이지(http : //www.k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차는 9월 신형 K5 개인 출고 고객(하이브리드 고객, 택시 고객 제외) 중 세이브오토를 이용하고 차량대금 중 100만원 이상을 현대카드로 결제한 고객(이용동의서 작성 고객 한정)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쇼핑 금액을 지원해주는 '쇼핑 반값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